

#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리를 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 회복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을 통해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역할

최민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과정)

신우열\*\*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과정)

박민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과정)

김주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회복탄력성과 자율성, 관계성 등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 모형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집단에서 모두 적합성을 보였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자율성과 관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자율성은 회복탄력성에, 다시 회복탄력성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성은 회복탄력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생활만족도는 비록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회복탄력성과 자율성, 관계성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요 변인인 자율성, 관계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과 이러한 변인들이 다시 회복탄력성과 생활만족도와도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긍정심리학계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자기결정성과 회복탄력성이 모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변인과 유의미한 구조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회복탄력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key words** :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율성, 관계성, 자기결정성, 회복탄력성, 생활만족도

---

\* primemina@yonsei.ac.kr

\*\* kalshin@yonsei.ac.kr

\*\*\* minapark@yonsei.ac.kr

\*\*\*\* jkim@yonsei.ac.kr, 교신저자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행위의 목표달성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Spitzberg & Cupach, 1984, 1989, 2002; 허경호 2003). 그러나 지금까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성격 등 심리학적 변인과의 관계(안선경 · 허경호, 2004; 허경호 · 한주리, 2006)를 살펴보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혹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는 연구(한주리 · 허경호, 2005; 장해순, 2003)가 대부분이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왜 중요한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한 긍정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특히 역경을 극복해내는 힘인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을 상대로 검증하여 보았다.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다(Garmezy, 1993; Luther, Cicchetti, & Becker, 2000; Reivich & Shatte, 2002; 이해리 · 조한익, 2005; Ong, Bergeman, Bisconti, & Wallace, 2006). 회복탄력성은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녕감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thony, 1987).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적응 능력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리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커뮤니케이션학의 관점에서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주목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자율성, 관계성, 생활만족도 등 기존의 심리학에서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던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한편,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가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이론이다. 라이언과 디씨(Ryan & Deci, 2000)는 만족스러운 삶과 정신적 건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자기결정성의 세 가지 요소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이 회복탄력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들이 있다(김미옥, 2008; 이은미, 2001; Bielefeld, 1989; Spitzberg & Cupach,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요소 중 회복탄력성과 관련 있는 자율성과 관계성에 주목하여 이 두 가지 요소가 회복탄력성을 중간적 매개 변인으로 하여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회복탄력성이나 자기결정성 이론 등 삶의 만족도 향상과 관련된 최근 성과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연구에도 많은 함의를 지닌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 체계 속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Werner & Smith, 1982)와 자기결정성을 구성하는 자율성과 관계성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들을 통해(안선경 · 허경호, 2004; Algren & Eichhorn, 2007; Miserandino, 1996)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생활 만족도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생활만족도가 이론적으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 매개 변인으로서 자율성, 관계성,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 모형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연령대가 서로 다른 집단에 각기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이 서로 다른 집단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잠재평균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요인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 2. 이론적 논의

### 1)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정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인지의 측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동의 측면으로 볼 것인지, 혹은 선천적이고 장기적인 성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황의 존적이고 단기적인 상태로 볼 것인지 혹은 언어적 능력인지 대인적 능력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허경호(2003)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통제력 등 무려 15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지닌 복합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인지적 그리고 대인적 능력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주변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적으로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Spitzberg, 1983).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인 간의 관계나 정신적 건강 등 개인에게 혹은 개인 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Leary & Kowalski, 1995; Lewinsohn, 1975; Segrin & Flora, 2000; Wierzbicki & McCabe, 1985). 예컨대 워너와 스미스(Werner & Smith, 1982)는 카우이(Kauai)섬 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이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워너와 스미스(Werner & Smith, 1982)는 1955년 카우이(Kauai)섬에서 태어난 아이들 698명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30여 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출생 당시 장애가 있거나 화

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 혹은 정신병리가 있는 부모에게 자란 경우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동은 심각한 문제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워너와 스미스(Werner & Smith, 1982)는 이러한 성격을 높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가진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자율성이 높은 사람과 대인 간 관계를 잘 맺는 개인이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유아기에 이미 뚜렷한 개인차를 보이면서 다양한 방식(단어 사용, 반응성, 사회적 상호작용성 등)으로 발현되었다(Werner & Smith, 1982).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율성이나 관계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장해순, 2003; Algren & Eichhorn, 2007; Miserandino, 1996). 안선경과 허경호(2004)는 관계성의 개념인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 자율성의 개념인 내적통제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김주환, 이윤미, 김민규, 김은주(2006)는 온라인 게임 중독의 원인을 자기결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율성, 관계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자율성과 관계성을 주요 내적 동기라고 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기결정성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자기결정성을 구성하는 내적 동기들이 높은 사람은 생활만족도가 높기 마련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자율성, 관계성, 회복탄력성 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계에 대한 그림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기결정성,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과 회복탄력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 요소인 자율성과 관계성이 회복탄력성을 거쳐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리라는 가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자율성, 관계성, 회복탄력성, 그리고 생활만족도의 직접적인 관련성뿐만 아니라 각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 2) 자기결정성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 발달과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을 구분하기 위하여 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으로, 디씨(Deci, 1980)가 자율적 의도와 통제된 의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Deci & Ryan, 1985, 2000).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적인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데 반해 외부적 요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길 바란다. 다만 인간은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가치, 행동 등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외적 보상이나 흥미가 없는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Deci & Ryan, 2000; 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디씨와 라이언은 “자기결정성은 선택의 경험, 다시 말해서 개인이 내적인 원인과 결과를 만드는 경험을 포함하는 인간 기능의 자질이다. 자기결정성은 보상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기결정의 심리적 특징은 다른 사람과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융통성이다”고 하였다(Deci & Ryan, 1985). 자기결정성 이론은 사람들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적 심리 욕구를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이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개인적 안녕감과 관계적 안녕감을 유발하고, 동시에 정신 건강이 향상된다는 것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이다(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Ryan & Deci, 2000). 여기서 자율성이란, 개인이 스스로 행동의 주체이고 통제자라는 신념이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인 것으로 여기려는 기본욕구와 관련이 있다(deCharms, 1968; Ryan & Grolnick, 1986). 유능감은 자신이 주변의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유능감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확장시키는 만족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Deci & Ryan, 1985; Elliot & Thrash, 2002).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주변의 가까운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이 회복탄력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기존 연구(Werner, & Smith, 1982)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김미옥(2008)은 장애인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기결정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은미와 박은진(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 및 제한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빌러펠트(Bielefeld, 1989)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비교적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네트워크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여기서는 회복탄력성과 관계성이 일련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관계성, 두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중대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적으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능력을 말한다(Garmezy, 1993; Luther, et al., 2000). 홍은숙(2006)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탄력성을 뜻하는 용어로 ‘심리적 건강성’(이완정, 2002), ‘유연성’(서지영, 2002), ‘극복력’(김동희, 2003), ‘회복력’(김혜성, 1998)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어려움에서 회복하여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 맞추어 ‘회복탄력성’이라 쓰기로 한다.

이 개념은 또한 스트레스나 역경에 취약하지 않다는 의미(Rutter, 1985)로도 사용되고 있고 내적 혹은 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Waters & Sroufe, 1983), 혹은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Polk, 1997)이라고도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회복탄력성이 다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결함이나 약점보다는 상황에 알맞게 융통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과 자원에 초점을 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유안진 등, 2005; 홍은숙, 2006).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환경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징(Dyer & McGuinness, 1996)을 가지고 있다.

회복탄력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Davidson, 2004; Ryff & Singer, 1996; Werner & Smith, 1982).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생활에 대한 인지적 차원인 생활 만족도와 감정적인 차원인 긍정적, 부정적 감정, 두 차원에 대한 평가로 구성(Diener, 1985)되는데, 많은 논문에서 회복탄력성이 감정적 차원에서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평가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Philippe, et al., 2009; Rutter, 1987, 1989; Tugade & Fredrickson, 2004, 2007). 반면 회복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적 차원인 생활만족도로 그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유안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개념적인 모형으로 구성하여 규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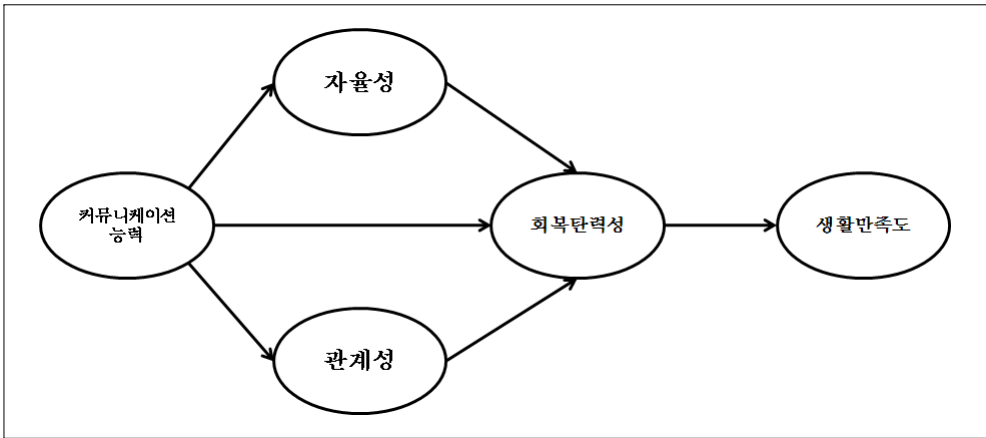
### 3.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율성과 관계성을 매개로 하여 회복탄력성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설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해 본 뒤,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가설 모형을 도출하였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학생 집단에 대한 자료는 남녀 공학 중학교 2학년 8개 학급과 3학년 10개 학급



〈그림 1〉 기본 가설 모형

의 618명(여학생 285명, 남학생 332명, 평균나이=14.4세, 표준편차나이=.57)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자료는 남녀 공학 고등학교 2학년 10개 학급 367명(여학생 175명, 남학생 192명, 평균나이=17.6세, 표준편차나이=.52)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학생 집단에 대한 자료는 사립 대학교 신입생 420명(여학생 204명, 남학생 216명, 평균나이=20.9세, 표준편차나이=1.9)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 3) 측정 척도

#### (1)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허경호(2003)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과, 반응력, 잠음통제력의 15개 하부차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 중 역지사지,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사회적 적절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감정을 잘 배려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등이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잠재변수 하나당 측정변수의 수는 2~4개가 적절하다. 만약 잠재변수를 설정하는데 있어 측정변수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추정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6개로 비교적 많은 편이므로, 변인 측정에 있어서 추정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측정변인을 적정한 수로 줄이기로 하였다. 이런 경우 사용

되고 있는 방법들로는 하위검사수준의 합산점수(composite score)를 측정변인으로 쓰는 방법, 문항이 6개라면 1+6, 2+5, 3+4의 요인계수를 가지는 문항을 더하는 방법, 내용상 상관성이 높은 문항을 짝 지워서 측정변인으로 쓰는 방법 등이 있다(김아영 · 차정은 · 이채희 · 서예리 · 최기연, 2004; Kishron & Widaman, 1994; Landis, Beal, & Tesluk, 1982).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무작위로 두 개 문항씩 선택하여 측정변인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6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각 두 개 문항의 점수를 평균으로 산정하여 3개의 측정 변인을 구성하였다. 측정변인 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Cronbach's alpha: 중학생=.682, 고등학생=.699, 대학생=.739).

## (2) 자율성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레베스크 등(Levesque, et al., 2004)의 연구에서 차용한 자기결정성 척도(SDI: Self-Determination Indices) 중 자율성 6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내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 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편이다”, “평소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별로 없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구성하는 문항 수가 6개로 많은 편이기에,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6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6개 문항을 무작위로 두 개 문항씩 선택하여 평균을 산정하여 3개의 측정 변인을 구성하였다. 측정변인 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Cronbach's alpha: 중학생=.736, 고등학생=.675, 대학생=.732).

## (3) 관계성

본 연구에서는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레베스크 등(Levesque, et al., 2004)의 연구에서 차용한 자기결정성 척도(SDI: Self-Determination Indices) 중 관계성 6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며 혼자 지내는 편이다”, “나는 내가 알고 지내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좋아한다” 등이다. 관계성을 구성하는 문항 수가 6개로 많은 편이기에 무작위로 두 개 문항씩 선택하여 평균을 산정하여 3개의 측정 변인을 구성하였다. 측정변인 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Cronbach's alpha: 중학생=.804, 고등학생=.819, 대학생=.810).

## (4)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레이비치와 샤테(Reivich & Shatte, 2002)가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를 수정하여 회복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레이비치와 샤테(Reivich & Shatte, 2002)는 회복탄력성을 감정통제력(emotion regulation), 충동통제력(impulse control), 낙관성(realistic optimism), 원인분석력(causal analysis), 공감능력(empathy),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적극적 도전성(reaching out)의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다면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비치와 샤테



(Reivich & Shatte, 2002)의 회복탄력성 42문항 중 각 요인 당 3개 문항씩 총 2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요인 점수를 3개, 2개, 2개씩 각각 합산해 3개의 회복탄력성 측정변인을 만들었다. 회복탄력성 측정변인 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Cronbach's alpha: 중학생=.828, 고등학생=.795, 대학생=.734).

### (5)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생활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us, Larsen, & Griffin, 1985) 5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예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던 중요한 일들은 이루어졌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5개 문항 중 4개를 2개씩 짝지어 평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2개의 측정변인을 만들어 나머지 한 개의 문항과 함께 3개의 생활만족도 측정변인을 사용했다. 측정변인 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Cronbach's alpha: 중학생=.803, 고등학생=.824, 대학생=.877).

### (6) 요인의 산정

본 연구의 잠재변인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율성, 관계성, 회복탄력성, 생활만족도이다. 모든 측정문항은 5점 척도(전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5)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표 1〉 중학생 집단의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N=618)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 $\alpha=.682$ )	CC1	3.32	.75	.067	-.28
	CC2	3.24	.69	-.02	.04
	CC3	3.25	.73	.24	.02
자율성 ( $\alpha=.736$ )	AUT1	3.76	.71	-.37	-.21
	AUT2	3.74	.71	-.53	.34
	AUT3	3.5	.70	-.19	-.17
관계성 ( $\alpha=.804$ )	REL1	3.87	.70	-.53	.94
	REL2	4.18	.74	-.87	.43
	REL3	3.72	.72	-.68	.88
회복탄력성 ( $\alpha=.828$ )	Resil1	10.16	1.55	-.05	.36
	Resil2	6.92	1.12	.02	-.01
	Resil3	7.13	1.17	.02	-.13
생활만족도 ( $\alpha=.803$ )	LS1	2.92	.76	-.09	-.01
	LS2	3.09	.83	.05	-.07
	LS3	2.7	1.09	.25	-.70

〈표 2〉 고등학생 집단의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N=367)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 $\alpha=.699$ )	CC1	3.22	.83	-.12	-.25
	CC2	3.34	.77	-.16	-.16
	CC3	3.25	.80	-.01	-.39
자율성 ( $\alpha=.675$ )	AUT1	3.66	.70	-.19	-.40
	AUT2	3.68	.70	-.12	-.28
	AUT3	3.49	.70	-.20	-.23
관계성 ( $\alpha=.819$ )	REL1	3.92	.63	-.17	-.48
	REL2	4.19	.72	-.79	.26
	REL3	3.71	.75	-.40	-.19
회복탄력성 ( $\alpha=.795$ )	Resil1	9.67	1.32	.27	.56
	Resil2	7.10	.92	-.02	.39
	Resil3	7.04	1.10	.11	-.27
생활만족도 ( $\alpha=.824$ )	LS1	2.70	.79	.07	-.19
	LS2	2.89	.86	.11	-.23
	LS3	2.51	1.11	.52	-.44

〈표 3〉 대학생 집단의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N=420)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 $\alpha=.739$ )	CC1	3.35	.75	-.03	-.54
	CC2	3.40	.69	-.16	-.14
	CC3	3.27	.79	-.25	-.36
자율성 ( $\alpha=.732$ )	AUT1	3.85	.64	-.42	-.22
	AUT2	3.81	.63	-.60	.96
	AUT3	3.77	.65	-.57	.51
관계성 ( $\alpha=.810$ )	REL1	4.10	.54	-.41	.16
	REL2	4.27	.66	-.81	.48
	REL3	3.73	.67	-.69	.68
회복탄력성 ( $\alpha=.734$ )	Resil1	10.79	1.46	-.18	.36
	Resil2	7.18	1.05	-.22	.83
	Resil3	7.68	1.15	-.28	-.001
생활만족도 ( $\alpha=.877$ )	LS1	3.05	.82	-.21	-.14
	LS2	3.13	.82	-.16	-.31
	LS3	2.90	1.02	.23	-.70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편포도<2, 첨도<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의 대상인 세 개 집단 모두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표 1>, <표 2>, <표 3>에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투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부록 표 참고).

## 4. 연구결과

### 1)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구인 동등성 비교와 잠재평균분석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할 경우, 많은 연구자들은 변량분석(ANOVA 혹은 MANOVA)을 이용한다. 비록 변량분석이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방법론 학자들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구하는 잠재평균분석을 훨씬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Aiken, Stein, & Bentler, 1994; Cole, Maxwell, Arvey, & Salas, 1993; Green & Thompson, 2003; Hancock, 1997). 잠재평균분석은 동일한 변수의 집단 간 비교에 있어서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는 t-test, ANOVA 등의 방법과는 달리 각 변수의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le, et al., 1993; Hancock, 1997). 하지만 잠재평균분석을 위해서는 측정모형의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그리고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Hong, et al., 2003). 이 세 가지 동일성에 대한 가정은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태 동일성→측정 동일성→절편 동일성’의 순서로 검증되어야 한다. 형태 동일성의 가정이 만족되어야 측정 동일성 가정을 검증할 수 있고, 측정 동일성 가정이 만족되어야 절편 동일성 가정을 검증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세 집단 모두에서 매우 유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중학생 집단:  $\chi^2(80, N=618)=272.701, p<.001, TLI=.924, RMSEA=.062$ ; 고등학생 집단:  $\chi^2(80, 367)=195.514, TLI=.919, RMSEA=.063$ ; 대학생 집단:  $\chi^2(80, 420)=224.988, TLI=.914, RMSEA=.066$ ).<sup>1)</sup>

1)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chi^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chi^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chi^2$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 않는다(김양하 · 장주영 · 김민규 · 김주환, 2007).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했다. RMSEA 값은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 사이면 적합한 적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다(김주환 외, 2009; Browne & Cudeck, 1993). TL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09; 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표 4〉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N=1405)

모형	$\chi^2$	df	TLI	RMSEA
모형 1: 형태 동일성(기저모형)	692.232	240	.920	.037
모형 2: 측정 동일성	732.676	260	.923	.036
모형 3: 측정 및 절편 동일성	1068.699	290	.886	.044
모형 4: 측정 및 부분 절편 동일성	822.352	280	.918	.037

측정 동일성의 검증을 위해 측정 모형의 각 잠재변인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과 기저모형(모형 1)의  $\chi^2$  값과 자유도를 비교했다. 즉, 측정 동일성 모형은 기저모형에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를 이용한  $\chi^2$  값 차이 검증이 가능하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잠재변인의 적재치를 중, 고 두 집단에 동일하게 부여한 동일한 모형(모형 2)과 기저모형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  $\chi^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Delta\chi^2(20, N=1405)=39.444, p<.01$ ). 이 결과는 측정 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chi^2$  값 차이 검증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김주환 외, 2006), RMSEA와 TLI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기저모형에 비해 좋아졌다( $\Delta TLI=.003, \Delta RMSEA=-.001$ ). 이는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기저모형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하며(홍세희 · 황태향 · 이은실, 2005),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절편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모형 2와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 3)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 2와 모형 3의  $\chi^2$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므로( $\Delta\chi^2(30, N=1405)=336.023, p<.001$ )  $\chi^2$  값의 차이에 의한 절편 동일성은 기각되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 역시 나빠졌으므로( $\Delta TLI=-.037, \Delta RMSEA=.008$ ), 모형 3의 절편 동일성은 기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측정 변인의 절편이 동일성 제약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측정변인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과 기저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chi^2$  값의 급격한 증가는 특히 5개의 측정변인이 절편 동일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동일성 제약을 가할 경우, 모든 미지수(예, 요인적재치, 절편, 경로 등)에 대해 엄격히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행연구(Bryne, Shavelson, & Muthen, 1989; Steenkamp & Baumgartner, 1998)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심하게 훼손하는 5개 측정변인들의 동일성 제약을 풀고, 부분적으로 절편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4)을 만들었다. 모형 2와 모형 4를 비교한 결과, 전체 측정변인의 절편 동일성 제약을 가했을 때(모형 3)와 비교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 차이는 미미하였다(모형 2와 모형 4의  $\Delta\chi^2(30, N=1405)=246.347, p<.001, \Delta TLI=-.005, \Delta RMSEA=.001$ ). 이는 세 집단에서 측정 도구와 일



〈표 6〉 모형의 집단별 모수 추정치(요인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수	중학생 (N=618)	고등학생 (N=367)	대학생 (N=420)
커뮤니케이션능력 → 자율성	.809***	.713***	.722***
커뮤니케이션능력 → 관계성	.707***	.704***	.603***
자율성 → 회복탄력성	.324***	.391***	.638***
커뮤니케이션능력 → 회복탄력성	.551***	.484***	-.151
관계성 → 회복탄력성	-.097	.039	.354***
회복탄력성 → 생활만족도	.309***	.310*	.224*
자율성 → 생활만족도	.392***	.252*	.189
커뮤니케이션능력 → 생활만족도	-.353*	-.183	-.079
관계성 → 생활만족도	.383***	.294**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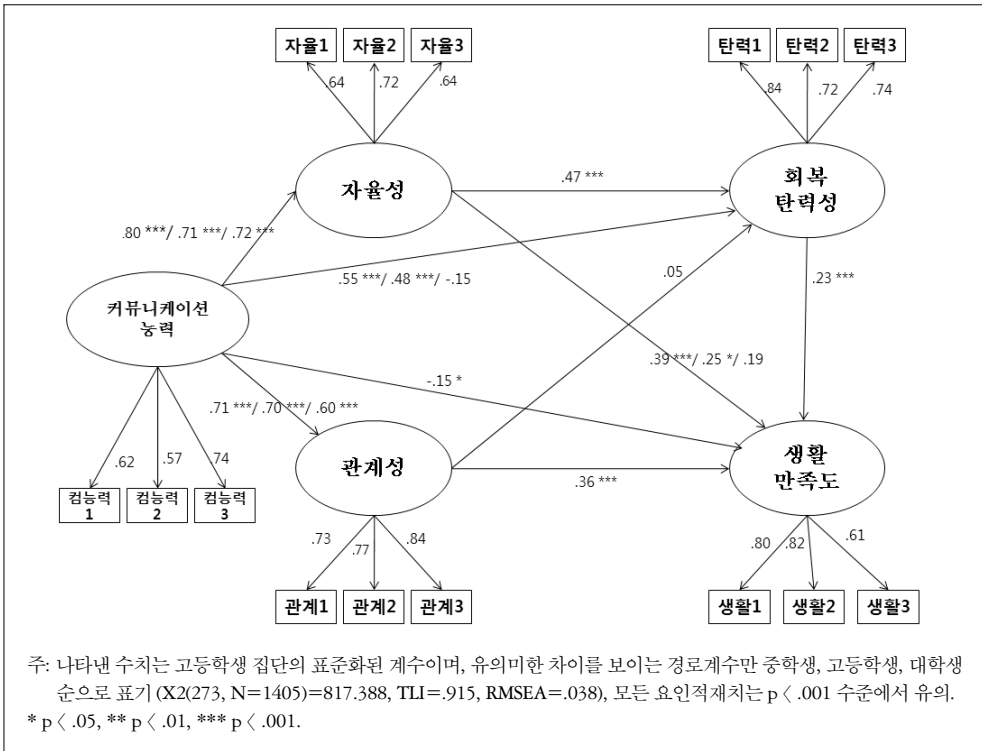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p<.05, \*\* p<.01, \*\*\* p<.001

〈표 7〉 기저모형과 각각의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간의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 변화량	χ <sup>2</sup> 변화량	TLI변화량
커뮤니케이션능력 → 자율성	2	14.050**	.001
커뮤니케이션능력 → 관계성	2	14.411**	.001
자율성 → 회복탄력성	2	5.162	.000
자율성 → 생활만족도	2	28.622***	.004
커뮤니케이션능력 → 회복탄력성	2	20.738***	.002
커뮤니케이션능력 → 생활만족도	2	.179	-.001
관계성 → 회복탄력성	2	.744	-.001
관계성 → 생활만족도	2	2.478	-.001
회복탄력성 → 생활만족도	2	2.335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8	64.183***	.001

니케이션능력이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율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커뮤니케이션능력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화 제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자율성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중학생 집단이 .80(p<.001), 고등학생 집단이 .71(p<.001), 대학생 집단이 .72(p<.001)였다. 이는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율성에 보다 강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관계성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중학생 집단이 .70(p<.001), 고등학생 집단이 .70(p<.001), 대학생 집단이 .60(p<.001)이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대학생 집단에 비해 더 강하게 관계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자율성이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그림 2〉 요인 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표준화된 계수가 중학생 집단이 .39(p<.001), 고등학생 집단이 .25(p<.05), 대학생 집단이 .19(p=.121)였다. 이는 중학생 집단에서 여타 집단에 비해 자율성이 생활만족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침을 짐작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의 경우 중학생 집단이 .55(p<.001), 고등학생 집단이 .48(p<.001), 대학생 집단이 -.15(p=.192)였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회복탄력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대학생 집단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율성, 관계성, 회복탄력성,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까지 동일성의 제약을 가한 모형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율성과 관계성, 회복탄력성을 거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각 변인들 간의 관계가 연령대가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각 변인 별로 다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커뮤니케이션이 자율성과 관계성을 매개로 하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회복탄력성을 거쳐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대체로 검증되었다. 다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관계성을 거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는 것보다 직접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관계성을 거쳐 생활만족도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을수록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내세웠다. 연구결과를 보면 세 집단 모두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직접적으로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 집단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직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율성, 관계성, 회복탄력성의 변인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 의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전체 효과를 미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율성과 관계성, 회복탄력성을 거쳐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능력은 자율성과 관계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회복탄력성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대학생 집단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자율성은 세 집단 모두에서 회복탄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생활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다. 하지만 대학생 집단의 경우 자율성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할 때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 생활만족도와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관계성은 대학생 집단에서만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며, 모든 집단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관계성은 생활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회복탄력성은 모든 집단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 즉 회복탄력성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하며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생활만족도 향상에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특성 및 역할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김민규 · 김주환, 2008; 안선경 · 허경호, 2004; 허경호 · 한주리, 2006; McCroskey, 1985; Spitzberg, 1983).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매개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자율성, 관계성, 회복탄력성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나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개발에 우선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야 함을 암시한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관계성 향상을 위해서 더 나아가 주관적 안녕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최고 수준의 우울증과 자살률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 언론학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대인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의 교과목 개발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다른 변인들과의 인과 관계를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였을 뿐 인과관계의 방향 자체를 검증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회복탄력성이나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워너와 스미스 연구(Werner, & Smith, 198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려서부터 가장 일찍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trait)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최우선적인 독립변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물론 명확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 자료에 입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미옥 (2008).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권 2호, 99~129.
- 김민규 · 김주환 (2008).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인불안과 우울증을 매개로 알코올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205~222.
- 김아영 · 차정은 · 이체희 · 서예리 · 최기연 (2004). 학교급 간 학업적 자기조절척도의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20권 1호, 243~264.
- 김양하 · 장주영 · 김민규 · 김주환 (2007). 텍스트 기반 온라인 사회 상호작용(TOSI)의 습관적 이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8호, 119~146.
-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환 · 김은주 ·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권 1호, 243~264.

- 김주환 · 이윤미 · 김민규 · 김은주 (2006). 온라인 게임 중독의 유형과 원인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79~107.
- 안선경 · 허경호 (2004). 개인의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321~345.
- 유안진 · 이점숙 ·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권 5호, 123~132.
- 이은미 · 박은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권 1호, 3~24.
- 이해리 ·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42권 12호, 161~206.
- 윤현희 · 홍창혁 · 이진환 (2001).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권 1호, 33~53.
- 장해순 (2003). 대인갈등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상호관계, 매력 간의 관계. 『언론과학연구』, 3권 2호, 302~344.
- 장해순 · 허경호 (2005). 관찰자 측정 스피치 능력 척도 타당성 검증. 『방송학보』, 19권 1호, 178~217.
- 한주리 · 허경호 (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202~227.
- 허경호 · 한주리 (2006). 대인 의사소통 능력이 대인 의사소통 만족에 이르는 과정: 경로모델 분석. 2006년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8~191.
- 홍세희 · 황매향 ·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권 4호, 1159~1177.
- 홍은숙 (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권 2호, 45~6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e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ial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 456~466.
- Canary, D. J., & Stafford, L. (1992). Relational maintenance strategies and equity in marriage. *Communication Monographs*, 59, 239~267.
- Davidson R. J. (2004). Well-being and affective style: neural substrates and biobehavioural correlat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359, 1395~1411.
- DeCharms, R. (1968). *Personal caus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 ~ 75.
- Duran, R. L. (1983). Communicative Adaptability: A measure of social communicative competence. *Communication Quarterly*, 31, 320 ~ 326.
- Elliot, A. J., & Thrash, T. M. (2002).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in personality: Approach and avoidance temperament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804 ~ 818.
- Garmezy, N. (1993).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 ~ 136.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 ~ 654.
-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757 ~ 765.
- Landis, R. S., Beal, D. J., & Tesluk, P. E. (2000). A comparison of approaches to forming composite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 186 ~ 207.
- Levesque, C., Zuehlke, A. N., Stanek, L. R., & Ryan, R. M. (2004).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68 ~ 84.
- Lösel, F., Bliesener, T., & Köferl, P. (1989). On the concept of invulnerability: Evaluation and first results of the Bielefeld Project. In M. Brambring, F. Lösel & Skowronek (Eds.), *Children at risk, assessment, longitudinal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187 ~ 227). Berlin: de Gruyter.
- Luther, S. S., Cicchetti, D., & Becker, Bronwyn.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 ~ 562.
- Patrick, H., Knee, C.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434 ~ 457.
- Philippe, F., Lecours, S., & Genevieve Beaulieu-Pelletier. (2009).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s: Examining the role of emotional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77, 139 ~ 176.
- Polk, L. V. (1997). Toward a middle-range theory of resili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 1 ~ 13.
- Reivich, K., & Shatte,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Books.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 ~ 611.
- Ryan, R. M., & Grolnick, W. S. (1986). Origins and pawns in the classroom: Self-report and projec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0 ~ 558.
- Ryff, C. D., & Singer, B.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5, 14 ~ 23.
- Ryan, R.M., & Deci, E.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 ~ 78.

- Spitzberg, B. H. (1977). *Relationally competent communication: A review, synthesis, and empirical test of a predictive mode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Part A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pitzberg, B. H. (1983). Communication competence as knowledge, skill and impression. *Communication Education*, 32, 323~329.
- Steenkamp, J.-B. E. M.,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78~90.
- Tucker, L. R., & Velicer, W.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 432~442.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20~333.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7). Regulation of positive emotions: Emotion regulations strategies that promote resili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 311~333.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 Hill.
-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logy*, 5, 503~515.
- Wiemann, J. M. (1977). Explication and test of a mod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 195~213.

최초 투고일 2009년 6월 12일  
게재 확정일 2009년 7월 18일  
논문 수정일 2009년 7월 28일

■ 부록 ■

〈표 1〉 중학생 집단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618)

	AUT1	AUT2	AUT2	CC1	CC2	CC3	REL1	REL2	REL3	Resil1	Resil2	Resil3	LS1	LS2
AUT2	.572**													
AUT3	.455**	.500**												
CC1	.227**	.326**	.345**											
CC2	.323**	.317**	.349**	.381**										
CC3	.381**	.512**	.423**	.512**	.492**									
REL1	.464**	.467**	.392**	.346**	.345**	.446**								
REL2	.303**	.337**	.316**	.201**	.284**	.336**	.513**							
REL3	.358**	.425**	.344**	.267**	.355**	.411**	.531**	.639**						
Resil1	.478**	.386**	.470**	.334**	.471**	.444**	.425**	.282**	.354**					
Resil2	.341**	.316**	.412**	.369**	.421**	.425**	.331**	.253**	.281**	.646**				
Resil3	.389**	.394**	.489**	.336**	.418**	.440**	.331**	.233**	.266**	.671**	.577**			
LS1	.388**	.347**	.319**	.131**	.259**	.239**	.324**	.253**	.320**	.396**	.246**	.329**		
LS2	.357**	.275**	.266**	.189**	.236**	.315**	.381**	.295**	.346**	.379**	.225**	.289**	.644**	
LS3	.299**	.258**	.195**	.101*	.196**	.205**	.254**	.254**	.300**	.305**	.142**	.263**	.437**	.496**

\* p < .05, \*\* p < .01

〈표 2〉 고등학생 집단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367)

	AUT1	AUT2	AUT2	CC1	CC2	CC3	REL1	REL2	REL3	Resil1	Resil2	Resil3	LS1	LS2
AUT2	.523**													
AUT3	.339*	.459**												
CC1	.182**	.394**	.290**											
CC2	.209**	.259**	.293**	.334**										
CC3	.273**	.384**	.291**	.522**	.435**									
REL1	.374**	.401**	.206**	.359**	.261**	.318**								
REL2	.331**	.371**	.196**	.318**	.282**	.345**	.557**							
REL3	.361**	.388**	.225**	.413**	.328**	.398**	.609**	.654**						
Resil1	.428**	.436**	.438**	.364**	.422**	.414**	.423**	.311**	.411**					
Resil2	.249**	.332**	.354**	.330**	.475**	.362**	.368**	.328**	.385**	.617**				
Resil3	.371**	.445**	.453**	.482**	.315**	.444**	.396**	.302**	.379**	.610**	.517**			
LS1	.246**	.283**	.223**	.317**	.160**	.203**	.304**	.259**	.311**	.369**	.244**	.358**		
LS2	.377**	.311**	.278**	.314**	.199**	.227**	.403**	.269**	.371**	.382**	.223**	.351**	.642**	
LS3	.213**	.190**	.207**	.222**	.130*	.116*	.189**	.120*	.230**	.343**	.142**	.252**	.490**	.520**

\* p < .05, \*\* p < .01

〈표 3〉 대학생 집단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420)

	AUT1	AUT2	AUT3	CC1	CC2	CC3	REL1	REL2	REL3	Resil1	Resil2	Resil3	LS1	LS2
AUT2	.508**													
AUT3	.419**	.510**												
CC1	.220**	.391**	.316**											
CC2	.204**	.306**	.263**	.422**										
CC3	.316**	.480**	.419**	.605**	.481**									
REL1	.323**	.413**	.405**	.291**	.200**	.352**								
REL2	.233**	.306**	.241**	.220**	.183**	.332**	.491**							
REL3	.215**	.390**	.339**	.266**	.226**	.445**	.487**	.666**						
Resil1	.324**	.369**	.415**	.196**	.279**	.251**	.418**	.273**	.342**					
Resil2	.230**	.252**	.361**	.215**	.219**	.254**	.367**	.188**	.235**	.455**				
Resil3	.358**	.377**	.455**	.359**	.162**	.326**	.393**	.331**	.309**	.562**	.444**			
LS1	.292**	.288**	.375**	.257**	.205**	.321**	.479**	.307**	.396**	.383**	.299**	.333**		
LS2	.284**	.313**	.326**	.191**	.191**	.271**	.461**	.336**	.400**	.400**	.316**	.280**	.774**	
LS3	.269**	.276**	.314**	.225**	.208**	.207**	.318**	.259**	.272**	.294**	.208**	.282**	.597**	.585**

\* p < .05, \*\* p < .01

# Communication Competence Makes us Stronger and Happier

## :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n Resilience, Self-Deter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Mina Choi**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Wooyeol Shin**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Mina Park**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Joohan Kim**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resilience, autonomy, and relatedness. For the present study, we hypothesized a structural model (1) to examine the effects of autonomy and relatedness, assumed to be influenced by communication competence, on 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and (2) to investigate how these effects are moderated by group differences manifested in the three independent samples: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 data with each sample fit the hypothesized model well. Through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communication competence has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thorough autonomy, relatedness, and resilience even though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do not have any direct relationship. The series of multi-group analyses show that communication competence improves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s. The implication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educators need to focus more on communication competence development.

Key words : communication competence, resilience, autonomy, relatedness, self-determination theory, life satisfaction